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국어교육 연구의 과제*

서 현 석 (전주교대)

< 목 차 >

- | | |
|------------------------|----------------|
| 1. 시작하며 | 3. 국어교육 연구의 과제 |
| 2. 미래의 국어교육을 위한 비판적 논의 | 4. 맺으며 |

국문초록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며 앞으로 다가올 국어교육의 모습을 전망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미래 세대인 학습자들이 좀 더 풍요로운 국어사용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먼저 ‘문식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리고 미래를 살아 갈 학습자의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돕기 위한 국어 교육 연구의 방향을 ‘자기배려’를 고려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탐구, 학습자의 삶에 의미있는 국어활동의 특성 연구, 인성교육으로서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실천방안 연구, 통일을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방향 연구 등으로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1월 11일 개최된 국어문화회 제 5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날 토론해 주신 이래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주제어: 미래의 국어 학습자, 문식성, 핵심역량, 국어사용 능력,
자기배려, 국어활동, 인성교육, 통일교육

1. 시작하며

현재 우리는 소위 ‘지식 기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실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디지털 문식성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서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또한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 기준 82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민족 통일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점차 단절되어 가며,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토로하고 교육부에서는 새삼스레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정부의 교육적 대응도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며 앞으로 다가올 국어교육의 모습을 전망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마땅히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터하여 이 연구는 미래 세대인 학습자들이 좀 더 풍요로운 국어사용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먼저, 현재의 국어과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국어사용 능력

으로써 ‘문식성’의 개념과 최근 개정 고시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의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돕기 위한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2. 미래의 국어교육을 위한 비판적 논의

‘문식성(literacy)’과 국어과 교육의 ‘핵심 역량’의 개념을 중심으로

오미영 외(2005)에서는 의사소통이란, 송수신자 간에 ‘마음먹은 바의 뜻(의사/意思)을 막힘없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소통/疏通)’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국어사용 능력은 ‘국어를 사용하여 마음먹은 바의 뜻을 막힘없이 서로 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시작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삶을 위해서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건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그 과정을 좀 더 적절하게 구성해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국어 교육은 유독 인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 집중해 왔던 경향이 분명 있다. 이는 원래 문식성 교육이 인간이 터득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후대에 전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 국어교육에서 지향하는 ‘국어사용 능력’의 개념을 논의할 때에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써 ‘문식성(literacy)’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문식성’의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하여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현재 사회의 담화 공동체가 가치롭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혜승(2009)의 연

구에서는 문식성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호 자원을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힘’으로 정의한 바 있다.

요컨대, 문식성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의 변화와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모해 왔으며, 이에 따라 문식성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박영목, 2008). 이렇듯 문식성의 개념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국어교육의 연구자들은 인쇄된 ‘글(문자언어)’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말(구두 언어)’과 서로의 뜻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체’를 포괄하는 ‘전인적 측면’에서 국어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고유한 관점에서 지향하는 국어사용의 원리가 무엇인지,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Rifkin(2012)의 전망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는 ‘협력, 소셜 네트워크, 창의성, 분권화, 수평적 권력 구조’ 등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타인과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국어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씀으로써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듯 하다.

즉, 옥현진(2013)에 따르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권력의 원천은 자본이나 재화에서 지식(지배 담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러한 지배 담론은 결국 문식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좀 더 이상적인 수평적 권력 구조가 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담화 공동체의 적극적인 문식 실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은 문식 활동을 통해 실세계의 사회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험이나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경험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옥현진, 2013: 62).

또한, 교육의 영역에서 가치의 문제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데, 국어교육에서 ‘가치지향’은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사용이 삶에 미치는 본질적 영향력

을 깨닫게 하고, 어떤 관점으로 국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현재 국어 학습자들은 보면서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현대인의 인간 소외 현상에서 기인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해와 표현의 소통 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국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국어사용 능력은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 독자와 필자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국어교육은 인지적 측면에 편중된 면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교육이 추구하는 국어사용 능력은 단지 ‘자신의 생각만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기보다 ‘타인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생성하는데 필요한 ‘배려적 사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관심과 노력,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태도는 국어사용을 통하여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고 공유’하려는 활동 과정에서 작동하는 ‘공감’과 ‘배려’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현석(2007)은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강조해 온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에 더하여 ‘배려적 사고력’이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연구에서 ‘배려적 사고’란, 대안들을 찾고 관계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고, 차이를 판단하고 조절해가는 데 작동하는 정신적 작용으로 정의되었다. 배려적 사고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인격적 준거’로서 관계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려적 사고 작용은 가치를 보존하고 복합적 상황에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며, 규범적 사고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몰입하여 생각하는 감정이입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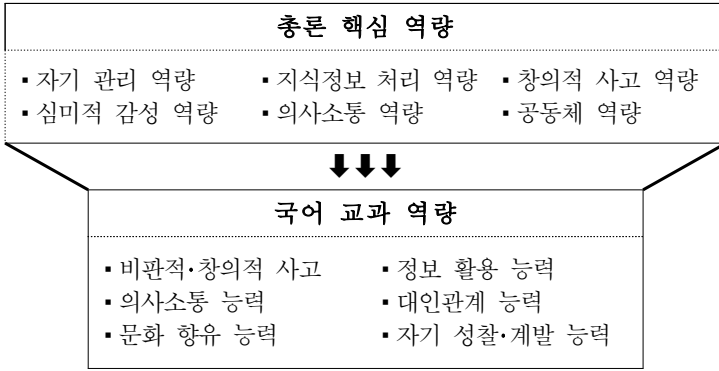
박인기(2015)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지식, 기술, 문화 등의 생태적

총체와 교육이 상호 상관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융·복합의 인식론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식론은 문명사의 차원에서 볼 때 근대가 해체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탈근대와 후기 정보화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분절, 분화의 세계와 그것에 대응되는 지식 세계를 넘어서려는 지향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즉,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교육은 여전히 분절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데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지속가능의 발달 인식론의 패러다임은 인간 발달의 목표를 분절된 지식이나 기능에 두지 않고 그것들이 융·복합되어 ‘능력’이나 ‘소양’으로 드러나는 바를 바라보게 되었다. 요컨대, 발달의 목표를 융·복합의 현상적 실체라 할 수 있는 ‘역량’에 둬으로써, 교육의 지향과 과정이 학습 주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들이 의미 있게 융·복합될 수 있는 양태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즉,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현행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교육부 2017년 대입제도 발표, 2013.10.25.), 2015년 9월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개정의 중점을 둔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과 공통분모를 유지하면서 개념적 용어와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국어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바로 <표1>의 내용이다(김창원 외, 2015).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역량 (출처:김창원 외, 2015)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의 내용에서 미래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것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각각의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과 의미(김창원 외, 2015)

구 분	의 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 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구 분	의 미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 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표2> 안에 연구자가 진하게 표시하여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과 핵심역량의 의미를 요약하면, 자신의 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의미를 점검, 조정하는 데 필요한 국어사용 능력이며,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속적인 성찰과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앞에서 언급한 ‘공감’과 ‘배려’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면,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기보다 다분히 어떠한 외부의 목적을 염두에 둔 도구주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원래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실제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주목받아, 주로 직업교육이나 훈련분야 등 성인교육 분야에서 적극 수용된 것이다(소경희, 2006). 기업의 업무 목표 달성이나 군에서의 작전 수행 시 개인의 성취를 타당하게 예언하기 위하여 사용된 ‘역량’이라는 용어는 점차 실제 삶 속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수행에서 드러나는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문 분야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MCClelland, 1973 ; 윤정일 외, 2007 재인용).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면에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학습자 당사자의 개인적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목적보다 외부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추어야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주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 상에 거론되는 ‘교육적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양미경(2015)은 현재 교육 현상 속에서 논의되는 ‘자기 계발’, ‘역량’, ‘평생 학습사회’ 등의 담론을 검토해 본 결과, 이들 논의는 교육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논의하는 맥락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세속적·도구적 목적에 의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조차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한 것이자, 권력의 개입과 조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교육 연구 영역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나 역량 강화를 외치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 역량’과 ‘공감·배려’를 연결하는 과정은 꽤 멀고 험난하며 이 둘을 잇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교육학적 난제들을 모두 거론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그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의 한계를 넘어선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연결하기 위해서 국어교육의 실천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며 다음 장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국어교육 연구의 과제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안할 것이다. 그 내용은 ‘자기배려’를 고려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탐구, 학습자의 삶에 의미있는 국어활동의 특성 연구, 인성교육으로서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실천방안 연구, 통일을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방향 연구 등이다.

3. 국어과 교육 연구의 과제

3.1. 학습자의 ‘자기배려’를 고려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탐구

개정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 즉, ‘주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양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 계발’, ‘역량’, ‘평생학습사회’ 등의 실천 가능성을 ‘자기배려를 통한 내부로부터의 저항’이라는 Foucault의 관점에서 찾고 있는데, ‘자기배려’는 ‘배려’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 배려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 Noddings(1984:64)도 역시, 배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배려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아이는 자신에 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도록 이끌려야 하며, 이것은 그가 자신의 육체적 자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자아를 위해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허영주(2013)의 연구는 자기배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배려와 국어교육과의 접점을 찾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즉, 그는 자기배려를 강조한 Noddings와 Foucault의 자기배려 이론을 비교·분석하여 자기배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 연구 내용에서 자기 배려 교육은 첫째, 교육의 목표로 자기수용과 자기완성을 넘어, 좋은 삶을 위한 적극적 자기변형을 통해 자기구원(초월)에 도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내용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기수용에서 시작해서 자기수련과 자기연마로 옮겨가야 한다. 셋째,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위해서는 자기 경청, 자기대화, 자기 표현적 글쓰기, 교사의 말 경청과 독서, 그리고 독서한 내용에 대한 글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배려의 교육 방법으로는 명상을 통해 지성을 개발하고 생각하는 법을 다듬어야 하며, 학생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해야 함을 들고 있다. 또한 교사는 자기배려를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

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국어 표현을 배우기에 앞서 ‘자기배려’는 기존에 국어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경청, 대화, 글쓰기, 독서 등 국어사용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어과 교육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배려’를 기반으로 ‘타인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기배려’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어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등은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의 장소 즉, ‘국어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자기배려의 시범을 보고 배우며 서로를 독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국어 교육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자기배려’의 능력을 기르고 유의미한 국어 활동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형성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 진다. 정기철(2010: 229-230)은 다문화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존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존중하자’는 리콰르의 말을 제시한다. 그 원리는 한마디로 ‘타자로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즉, 다문화 사회의 성공 여부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정체성 확립 여부에 달려 있는데, 자기 정체성은 자기성만이 아닌 타자성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성의 우선권’과 ‘타자성의 주도권’을 상호 보완하는 길은 곧 ‘다른 사람의 의미를 나의 의미 안에서 그리고 나의 의미로부터 구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문화 시대에 국어교육은 타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기배려’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수립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국어과 교육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

3.2. 학습자의 삶에 의미있는 국어 활동의 특성 연구

국어과 교육의 실천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념적이고 논리적 추론만으로 학생의 국어사용의 습관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있는 타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며, 다양한 윤리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을 배려하는 국어사용 능력을 길러나가도록 노력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목적’은 ‘의미 있는 국어사용의 경험’으로 학습자에게 전해 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국어 활동이든 국어사용의 경험은 학습자의 국어 행동(수행)을 변화시키는 ‘자극’으로써 작용하였을 때 그 교육적 의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형성함에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은 루소(Rousseau)의 경험을 중시한 교육, 듀이(Dewey)의 ‘행함으로써의 학습’과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인 지식의 암기와 반복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의 입장에 반기를 든 것으로 현재의 구성주의적 관점과 중첩된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습득과 구성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개인의 독립적인 인지적 작용에 의한 것이고 둘째로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강인애, 1997). 이러한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한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란 자신의 내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타인(외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읽’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개인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상호주관적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국어 학습에 임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미 구성주의적 관점은 우리

국어 교육 현장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교육과정에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학습자 중심의 언어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최근 행동주의 심리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능동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페러다임이 교육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기존에 인간의 발달을 설명해 온 ‘자극-반응(S-R)’에 의한 ‘행동의 변화’라는 학습의 관점이, ‘대상-활동-주체(object-activity-subject)’를 축으로 한 ‘상호작용적 활동의 경험’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활동은 사회적 실천으로써 국어사용에 내재된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국어과 교육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학생들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 이면에 있는 사회적 맥락과 개별적인 삶이 맥락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어사용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자 사회적 맥락을 전제로 실현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개별 활동과 얽혀 있는 개별적인 삶의 맥락을 교육의 장으로 적극 끌어와서 그 속에서 국어사용 능력의 발달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명순, 2003).

국어 활동은 독립된 주체인 의사소통자들 사이에서 국어사용 능력의 발달을 중재하고 견인한다. 즉, 국어 수업의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어활동’은 이 요소들을 동시에 조합하고 운용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국어사용 능력은 국어 활동을 중재로 학습될 수 있다.

최근 국어교육에서 문식성의 실천 국면을 다룬 김은성의 연구(2015: 177-178)에서는 관계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국어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면을 엿보게 한다. 그 사례 연구에서는 배려교육에서 중시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즉,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활

동 중에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의 경험으로 각인된 핵심 지점’을 파악하고 자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관객(동료 학습자)과의 ‘쌍방향의 소통, 면대면의 직접 소통, 많은 접촉’이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활동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 활동의 최대 장점으로 ‘지속적,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결국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유의미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어교육 연구자들은 일상에서 학습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을 다루는 그들의 고유한 방식과 학습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의미의 구성 방식에 좀 더 주목해야만 한다. 이 과정은 배려교육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내적 순환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관점과도 맥이 통한다.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육 활동의 개발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나 작용 원리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육적 실천 행위를 특징짓는 고유한 의도와 체험이 무엇 인지를 명료화하는 일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인성교육으로서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실천 방안 연구

인간의 의사소통은 곧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며,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 사람됨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됨’이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박지운, 2009: 60), ‘현재 한 인간이 펼치고 있는 일체의 행위 및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중, 2011: 87)이기 때문이다.

모국어인 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국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어사용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을 길러 나가는 것을 의

미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에게 자신의 국어사용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탐구하고 판단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도구이기는 하되, 그것은 수단이자 인식 그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양상이라고 본다면 언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식과 가치의 문제’라는 견해(김대행, 1997)와 일맥상통한다.

언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기보다 인간의 내면에 형성된 정신이 부지불식간에 유출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말’과 ‘글’을 통하여 자연스레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일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과도 같다. 이 점에서 국어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 변화를 꾀하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핵심 영역이며,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성교육과 국어교육을 연결지어 논의할 때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비속어 혹은 욕설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김정선(2012)에 따르면, 현재 여러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 언어문화의 문제는 청소년의 비속어, 폭력적 언어 표현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국어원(2011)의 설문조사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97%, 중고등학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접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95%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욕’은 평범한 말하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욕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데, 학교 교실에서도 욕은 일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함께 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래 집단에 합류할 수가 없다는 학생들의 말이 충격을 더한다.

청소년의 ‘욕설’ 사용은 가정과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과 인터넷이라는 소통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동하기에 좀 더 강력하고 큰 문제이다. 청소년의 국어사용에 우리 사회 전체가 관여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욕설’이다. ‘욕설’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의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어 생활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는 인터넷(카페, 게시판 등) 56.2%, 방송 25.4%,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16.2%, 신문 2.2% 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국어원, 2014)¹⁾. 이러한 조사 내용은 우리의 국어사용에 인터넷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또한,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변의 선후배나 친구들의 말투(44.1%),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29.2%),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말투(17.2%)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생활 속에서 직접 대면하는 의사소통의 상대, 혹은 언어 환경으로써 유의미한 국어 사용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양명희(2012)는 욕설이 인성 및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욕설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언어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욕은 개인의 인성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금의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삶에서 언어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학생들은 매일 학교와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언어를 발달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욕설’은 학생의 삶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혹은 가정 내 언어 폭력 등은 학생의 언어 사용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아직 미숙한 또래끼리의 결속을 강화하여 잘못된 ‘청소년 국어문화’를 추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습자가 학교와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접하고 행하는 국어사용에 대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1) 출처- http://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19&pageIndex=5

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한 구성원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삶이나 행복에도 깊이 관여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서로 배려하는 의사소통 문화는 정신력이나 도덕적 성숙과 더불어 개인과 관련된 공동체 안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개인 학습자의 삶에 직접 관여하는 국어교육은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하여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총체적,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국어교육은 한 개인이나 학교만의 노력만으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으며, 가정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를 둘러싼 실제적 국어사용의 환경인 지역사회-학교-가정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교육적 구심점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3.4. 통일을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방향 연구

신현재(2015)의 연구에서는 남북 분단 70년이 빚어낸 국어사용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일 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완결된 형태도 아니며 자신의 주장이 정확한 논증을 통해 입증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데에는 충분하였다. 그 연구 내용에 따르면 ‘국어교과서’ 개발에 앞서 우선 국어 통일을 위한 연구로 북한 국어교과서와 인쇄 매체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방송매체나 탈북자를 대상으로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1)학습자 중심 지향, 2)도구 교과서 지향, 3)한민족 정체성 지향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남북한 학생들의 공통분모로써 사용될 문학적 제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래의 민족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어교육은 세밀한 연구로써 효과적이고 타당한 제재 및 교과서와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통일된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통일 후 국어교육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모색하는 일이다. 즉, 국어 교과와 지향점(목표 혹은 목적)은 변함이 없을 것인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국어과 교수-학습의 지향점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서의 국어교육과 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어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어’를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적 삶을 고려한 국어교육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4. 맺으며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학습이 항상 새로운 무엇을 습득하는 것만은 아니며,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변형하고 발전시킨 것을 포함한다. 행동이 유기체가 하는 일 중 측정이 가능한 모든 것이라면, 경험이란 행동에 측정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건들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학자들은 그런 사건들을 유의미한 자극이라 부르며, 학습은 생물학적 기제이지만 유전된 행동과는 다르다고 본다. 즉, 학습은 한 개체에게 그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행동을 수정하는 경향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학습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변화 가능성(evolved modifiability)인 것이다(김문수 외 역, 2010: 27-31).

국어 교육에서 학습은 학습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과정 즉,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 형성, 관계 형성, 협력하기와 배려하기 등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국어 학습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좀 더 확장된 국어과 교수-학습의 상황 속에서 학습들은 자신에게 유의미한 국어사

용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은 토의나 토론,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과 같은 담화나 글의 특성과 수행의 절차를 지식이나 개념으로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교실에서의 지식이 학습자의 인격적 지식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국어교육의 실천적 맥락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국어사용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 개별적인 주체로써 인간의 삶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원리나 정형화된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 연구자들은 국어사용으로써 드러나는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력의 특성과 실천 과정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반영한 국어 표현과 구현의 원리와 지도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사용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란, 이성적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반영한 판단으로 반드시 '배려적 사고'가 작용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국어교육의 실행은 학습자가 국어사용을 통하여 누군가와 함께 의미를 생성하고 그 의미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협력적 공동체로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문수·박소현 공역(2010), 『학습과 행동』, 시그마프레스.
- 김명순(2003), 「활동 중심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석완(2009), 미셸 푸코의 소크라테스 해석과 자기 배려의 교육, 『교육철학』 제 46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7-48.
- 김수동(2011), 「논어에서의 ‘배려 실천’ 고찰」, 『인격교육』 5(2), 한국인격교육학회, 5-36.
- 김은성(2015), 「청소년 문식성 교육의 출발점으로서의 ‘청소년어’와 국어교육」, 제 17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61-187.
-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목(2008), 21세기 문식성의 특성과 문식성 교육의 과제, 노명완 외(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박인기(2015), 「국어교육의 융·복합교육 기능과 작용」, 제 280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3-20.
- _____(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한국어교육학회.
- 서현석(2015), 「국어교육에서 배려교육의 실행가능성 탐구」, 제 280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13), 「아동,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화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탐구」, 『국어교육』 142, 한국어교육학회, 185-206.
- _____(2007), 「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 탐구」, 『국어교육학연구』 28. 한국어교육학회.
- 신현재(2015), 「초등학교 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모색-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 검토」, 2015 추계 공동학술대회

- 자료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5-74.
-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 알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명희(2012), 청소년 언어, 문제 있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17-32.
- 양명희·강희숙(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보고서.
- 양미경(2015), 「‘교육적 주체’로서의 인간 : 개념화의 난점과 과제」, 『교육원리연구』, 20(1), 한국교육원리학회, 47-71.
- 육현진(2013), 「문식성 재개념화와 새로운 문식성 교수, 학습을 위한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47, 청람어문교육학회, 61-86.
- 윤정일 외(2007),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한국교육학회, 233-260.
- 이재승(2004),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집, 서울 :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9-162.
- 이지중(2011), 「사람됨을 위한 언어교육의 방향」, 『인격교육』 5(2), 한국인격교육학회, 85-107.
- 임정연(2012), 「나딩스의 배려교육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기철(2010), 「다문화시대에 정체성을 위하여」, 『해석학연구』 25, 한국해석학회, 205-234.
- 정혜승(2009), 「문식성 실천으로서 베토벤 바이러스 팬덤(fandom) 읽기」,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273-324.
- 한대동 외(2009),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 서울 : 학지사.
- 허영주(2013), Noddings와 Foucault이론의 비교 분석을 통한 자기배려 교육의 방향 정립」, 『교육사상연구』, 27(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349-375..
- Cooper, H.(1996), Speaking power to truth: Reflections of an educational

- researcher after 4 years of school board service. *Educational Research*, 25(1).
- Foucault(2001/2007), Michel Foucault: *L'Hermeneutique du sujet -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81-1082*. Editions ju Seuil. Gallimard.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서울 : 동문선.
- Rifkin, J.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 Palgrave.. 안진환 역(2012), 『3차 산업혁명』명 , 서울 : 민음사.
- Rousseau, Jean-Jacques.(1911), *Emile* (Barbara Foxley, Trans.). New York : Dutton, Everyman's Library.(Original work published 1762).
- Lickona, T.(1997), Education for Character: A Comprehensive Approach. In Alex Molnar(ed). *The Constructioa of Children's Charac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병기·심성보·이인재·조강모 역(1999), 『아동의 인격교육론』, 서울 : 인간사랑.
- McClelland, D.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icheal S. Katz, Nel Noddings & Kenneth A.Strike (1999), *Justice and Caring :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in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ess. 윤현진·박병춘·황인표·정창우·정탁준 역(2007), 『정의와 배려』, 서울 : 인간사랑.
- Noddings, N.(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 Teachers College Press.
- Stewart, J., Zediker. K. E., & Witteborn. S. (2006), *Together: Communicating Interpersonally : A Social Construction Approach* (6TH), Roxbury Pub Co. 서현석·김운옥·임택균 역(2015), 『소통 협력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사회구성주의적 관점』,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Abstracts】

A Study on Directions in Korean Educational research to prepare for future challenges

Seo Hyun-seok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ppropriate way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al research to help the future generation to use more affluent Korea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I have searched for the definition of the literacy and the contents of new 2015 Korean curriculum focusing on Key competencies. Then, as a the topic of Korean education research project, four proposals were discussed to help the forthcoming future learner. Those things were the 'self care' exploring with the goal and the contents of Korean education,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eaningful language activities in the lives of learners, the study on the nature and practice of Korean education for a character education and the study of language education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of Korea.

Key words: Korean learners of the future, Literacy, Key Competence, Korean Competency, Self Care, Language Activities, Character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이 논문은 2016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